

문화재와 자연

가메야마 아키라 (도쿄농공대학 명예교수)

이 강연은 자연적 문화재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적이나 건조물 등의 역사적 문화재를 포함한 지역에서 문화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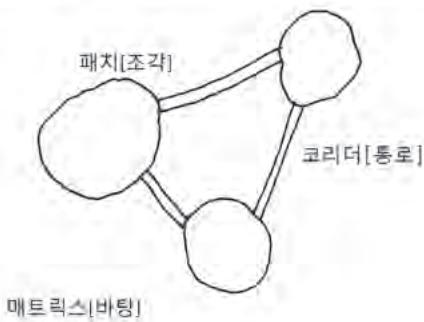
1. 자연적 문화재의 특징

자연과 문화재는 원래 대립되는 개념인데 '자연적 문화재' 같이 자연을 문화재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 독일의 '자연기념물', 미국의 '국립공원' 또는 '내셔널 모뉴먼트' 등의 제도가 효시로서 근대부터 시작된 것이다.

경관생태학 분야에서는 경관구조를 설명할 때 패치(patch) 와 매트릭스(matrix)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패치는 회화의 '그림 [圖形]'에 해당되고, 매트릭스는 '바탕 (地)'에 해당된다. 과거에는 자연이 매트릭스로



경관요소 (landscape elements)



서 바탕에 해당되었고, 인간의 활동은 패치나 패치를 연결하는 코리더 (corridor) 에 해당되었지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도시와 같은 인공적인 공간이 매트릭스가 되었고, 자연이 패치 또는 코리더에 해당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점에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연적 문화재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용어의 윤곽에 대해서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문화재보호법'의 명승을 예로 들면 정원이나 공원 등은 인문적 명승이라 하고, 계곡이나 해변 등은 자연적 명승이라 한다. 자연적 문화재는 자연적 명승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법률로 지정하고 있는 것 중에서 문화재의 자연적 명승과 천연기념물, 국립·국정공원 등의 자연공원, 삼림생태계 보호지역 등이 자연적 문화재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고, 세계자연유산도 포함된다. 자연적 문화재는 명승과 같이 토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과 같이 절멸위기의 동식물종도 포함된다.

오늘날 전세계 어디에도 인위적 영향이 전무한 상태에서 존재하는 자연은 보기 어렵다. 그 때문에 자연적 문화재라 해도 인위적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관계가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명승으로 지정된 협곡 중에는 자연 그대로의 풍경이 아닌 곳도 있는데 텐류큐 [天竜峡] 의 경우 협곡을 형성하는 기암 (奇巖)에 문자를 새기고, 암석 위에 정자를 짓는 등 인문화된 풍경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점장 (視點場) 을 배에 두는 유람선도 풍경의 인문화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한 것이다.

자연적 문화재는 사적·건조물 등과 같이 의도적으로 조성된 것이나 작품화된 것들과는 다르고, "무엇을 문화재로 할 것인가"라는 대상 그 자체의 논의가 중요하다. 또한, 지역의 자연환경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자연적 문화재가 그 지역 풍토에 뿌리 박혀 존재해 온 사실을 지역의 고유한 특징으로서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유산의 지역성은 그 지역에 존재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지역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지역행정적 평가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오히려 지역을 상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시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문화재의 종합적 파악 방법

일반적으로 사적이나 건조물 등을 역사적·문화적 유산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고, 천연기념물이나 자연명승 등의 자연적 문화재는 문화재와 관련이 없는 존재, 또는 사적이나 건조물의 배경으로서 자연환경의 일부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자연적 문화재는 자연의 일부를 자산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추출된 것으로서 인간의 의지가 강하게 표현된 우수한 문화적 유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문화적 유산은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문적인 것으로 대별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 역사적 문화재로서의 의미를 가지면서 인간의 손에 의해 창조된 것 또는 의도적으로 보호되어 온 것이라는 차이점이 존재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 문화재는 어떤 지역의 어떤 장소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근년, 문화재는 지역의 자연 및 역사적 유산으로서 종합적 파악이 요구되고 있으며, 문화재의 종합적 파악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문화 기본구상'이 지역활성화의 커다란 기둥이 되고 있다.

문화재는 지역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생활과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가치를 보전하면서 다음 세대에 전해 온 것이다.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화재라도 주변 환경이나 다른 문화재와 관련을 맺으면서 존재한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재와 주변환경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일정한 테마를 갖는 '관련 문화재군'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면서 문화재의 보존활용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되었다.

지역의 문화적 특색은 어떤 장소의 지형·지질·기후·생물·사람 등의 요소와 각각의 요소들이 상호 작용의 결과로서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것이다. 그것은 지역의 토지이용, 사람들의 생활방식 또는 생업으로서 오랜 세월 계승되어 온 것이다. 지역의 문화적 특색은 근대화 또는 효율화 속에서 사라지는 지역도 있고, 그 반대로 역사 문화가 계승되어 사람들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지역도 있다.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사람들은 태곳적부터 살기 시작하여 주거지 등의 유적을 남겼고, 자연에의 신앙과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키워오면서 살아왔다. 구릉지에는 2차적 자연으로서 신탄림(薪炭林)을 조성하였고, 용수를 이용하여 논농사를 하는 등 생활 속에서 자연과 공존하여 왔다. 인간이 관리하면서 다양한 환경이 유지되어 온 사토야마는 천연기념물인 동식물과 생태계를 키워왔다. 오래 전부터 신앙의 대상이 된 산, 인간생활을 지탱해주는 숲, 강에 의해

형성된 생활 등이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만들었다. 이것들은 사원, 취락, 생업, 생활, 전통적 행사나 관습 속에 계승되어 지금도 지역 사람들에 의해 소중하게 지켜오고 있다. 이들은 지역 속에 존재하거나 또는 경관 속에 존재하고,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경관 속에 사람들의 의식이 강하게 작용한 부분이 역사의 흐름과 함께 남게 되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진 것이 문화재로서 보호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인간이 자연과 관계를 맺으면서 역사적으로 만들어온 지표면의 총체가 경관이며, 경관은 지역의 자연 및 문화의 역사적 산물이다. 경관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사람과 자연의 관계로서 공통의 요소와 유사 패턴을 갖는 결과물로 공간적으로도 시각적으로도 인식 가능한 것이다.

문화재 보호에는 지역적 검토가 중요하다. 개별 문화재는 각각의 시간적·공간적인 넓이를 가지면서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은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생활, 주변의 토지이용,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 관련 문화재와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다. 그래서 연관성 있는 문화재를 경관으로 다루게 되면 연관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문화재가 재인식되기 시작한다. 더불어 전체적인 관련성을 검토하게 되면 문화재의 특징을 더욱 파악하기 쉽게 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점에서 가치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 1) 가메야마 아끼라 (2011): 일본의 자연적 랜드스케이프 유산의 특질과 평가의 시점, 랜드스케이프 연구, 74 (4), p.p.274-276, 일본조원학회
- 2)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지역자연정보네트워크 편집 (2011): 『히노데쵸 (日の出町) 역사문화 기본구상』; 73pp. 日の出町

